

朝鮮 時代 童蒙 教育의 方法的 原理*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류 점 숙**

Lew, Jeom Soo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particular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used in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onfucianism Classics.

The ultimate goal of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was the moral completion of human beings through daily practice.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childhood education were the principles of learning by imitation, early education, the inseparability of knowing and doing, education for Ye(禮) in daily life, sex-role education, and teaching with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The scientific validity of such methods of traditional education is verified in terms of its many points corresponding to important principles of modern education.

I. 序 言

“君子學” 또는 “人格學”이라 불리는 조선 시대의 儒學 教育은 그 목표를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德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 데 머무름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착한 本性을 회복하여 고귀한 품덕을 배양하는 것(明明德)과 인재를 양성하고 다스려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으로 대별되며 또 개인의 완성을 통하여 사회의 완성을 지향하려는 입장이기도 하다.

「大學」에서는 학문의 이상적인 목표를 이와같이 설정하고,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儒學의 八條目으로서 格物→到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순서가 된다. 八條目を 분석하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격물에서부터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치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 몸을 닦는 수신은 ‘明明德’의 일이며 집을 정돈하는 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평천하는 ‘新民’의 일이다. 따라서 학문의 목표는 개인 방면에서는 인격 수양, 즉 명명덕에 있으며 사회 방면에서는 치인, 즉 신민에 있다.

이러한 팔조목을 구비하여 모든 사물에 통하는 智와 모든 사물에 통하는 德을 가진 완전한 인격

* 본 논문은 1992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아동학과 교수

을 聖人이라 하며, 이는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형이다. 그러나 유가의 기본 덕인 仁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실현시킨 聖인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君子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물로 대체되고 있다. (李明基, 1985 : 140)

그러므로 德과 智가 衆出한 사람, 官位있는 사람이란 뜻의 軍자가 일반 士大夫家 자체 교육의 목표(權五鳳, 1987 : 287)인 동시에 수양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알기 위하여 「擊蒙要訣」을 살펴보면

학문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스러우며,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며...
..., 평상 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고,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 사귀에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학문이란 일상 생활에 대한 바른 삶 자체이었으며, 생활의 과정이 바로 교육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활이란 계속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교육은 곧 생애적 교육이었음도 알 수 있다.

생활 교육인 聖學(君子學)은 幼少時에, 그리고 기본 단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조선 시대 동몽 교재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小學」에서는 灑掃應對進退의 예절과 愛親敬長隆師親友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고, 다른 많은 동몽 교재에서도 역시 용의, 복장, 식사, 언행의 예절과 인간 관계 및 처세 방법을 가르쳐(丁淳睦, 1983) 자신의 인격 수양과 治人의 근본이 되게 하였던 것이

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동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聖人 敎育을 실시하였는지 유교 경전 및 동몽 교재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모든 교육적 이상은 방법에 의하여 그 성과가 결정되므로, 조선 시대 동몽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오늘날의 아동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적 원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II. 童蒙 敎育의 方法的 原理

1. 模倣의 原理

「論語集註」에 의하면 ‘學’이란 본받는 것으로, 뒤에 깨닫는 자가 먼저 깨달은 자의 행위를 모방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明明德과 新民, 즉 仁이다. 그러나 仁 그 자체의 직접적인 전달은 불가능하므로, 교육자는 다만 仁의 表現態만 보여 줄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만이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仁의 表現態를 관찰하고 내적으로 반성하고 결단함으로써 仁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 이 점에서 교육자의 勸善 수범적인 身敎가 言敎보다 더 유효하다. 특히 공자의 가르침이 덕행 위주라는 점에서 신교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吳康, 1963 : 32; 李明基, 1985 : 93에서 재인용)

신교는 교육자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습자가 본받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 때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는 물론 聖人(君子)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동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모 및 가족, 그리고 스승과 친구 등이 그들의 행동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동몽을 교육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小學」에는

사람이 나서 집안에 어진 부형이 없으며,

밖에 엄한 스승과 벗이 없고, 그러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 자는 적은 것이다.

라고 하여 부형, 스승, 벗 등을 모델로 요구하고 있다. 「小學」에서는 또 「禮記」를 인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曲禮에 말하기를 어린 자식들에게는 항상 보이되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설 때에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여 어릴 때 보고 듣고 익히지면 모두가 후천적인 인격을 이루게 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동몽이 보는 데서 부모가 용의를 정제하지 않거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곧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 학자인 羅振玉의 설에 따르면, ‘教’라는 글자는 오른쪽은 父를 따왔고 왼쪽은 ‘孝’를 딴 것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효로 가르치는 행위가 곧 教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게 하며 아버지의 태도를 모방하게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모든 행위가 자식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하여 교육에 있어 모델 제시적인 면을 ‘教’字의 글자 풀이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宋昌基, 1978 : 158)

즉 아들이 본받는 아버지의 평소 생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시하였던 효를 표준으로 하여 ‘教’字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위 父傳子傳·母傳女傳이라는 말도 모방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승도 역시 평소 생활에서 항상 가르치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여 飮食起居뿐만 아니라 視聽言

動을 모두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덕으로 감화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래서 「禮記」內則篇에 보면

제후의 孺子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히 그 아들의 방을 궁중에 만들고, 중첩과 傳御들 중에서 그 성질이 寬裕하고 慈惠롭고 溫良하며 恭敬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말이 적은 자를 가려내어 그 가장 뛰어난 자로써 아들의 스승을 삼았으며……

라고 하여 아기 때부터 이미 스승을 정하여 무의식적인 교육을 시켰고, 「東醫寶鑑」에서는 유모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정신이 爽慧하고 性情이 온화하며 肌肉이 充肥하여 아무런 질병이 없고, 寒溫의 適宜를 잘 알고 給乳의 절제를 마땅하게 할 줄 아는 유모를 구하고…… 유모의 稟質의 후박과 性情의 緩急과 骨相의 堅脆와 德行의 선악을 아이가 반드시 닮으니 더욱 연관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여 유모 선택에서도 신체 조건 못지않게 정신적인 조건을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선 시대의 백과 사전 격이었던 「增補山林經濟」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날의 Erikson 이론에 비추어 보면 영아기부터 관유·온량·공경·근신 등의 좋은 덕성에 접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신뢰감이 발달되어 긍정적인 인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士小節」에서 스승의 역할과 선택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어린이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이 짐을 공명하게 하고 학업을 정대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장성하면 스승과 벗을 따라 공부하되 반드시 단정하고 우아한 이를 취한다.

라고 한 바와 같이 지식보다 덕으로 더 영향력이 있기를 요구하였다.

아동이 성장하게 되면 친구 선택도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知德이 보다 나은 자를 가려서 모방하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袁氏世範」處己편에는

사람이 평소에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려는 것은 군자의 말은 대부분 깊이가 있고 바르며 신중하여서, 이 말이 먼저 마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연히 깊이가 있고 바르고 신중한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이며, 소인의 말은 대부분 깊이가 없고 浮華하여 이 말이 먼저 마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연히 깊이가 없고 浮華한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 하였고, 「東蒙先習」에서는

벗은 같은 무리의 사람이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있고, 해로운 벗이 세 종류가 있는데, 끈고 성실하고 건문이 많은 벗은 이롭고, 편벽되고 유약하고 아침하는 벗은 해롭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다.……

벗을 취함은 반드시 단정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벗을 가림은 반드시 나보다 나은 자로 하여야 한다.

하였으며, 「啓蒙篇」에서는

군자는 글을 가지고 벗을 모으고, 벗을 가지고 자신의 仁을 돕는다. 대체로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 없으나 벗 사이에는 도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덕성을 취함에 있어 師友의 힘보다 큰 것은 없다.

라고 하였다. 공자도 “朱를 둔 곳은 붉고 漆을 간직한 곳은 검은니 군자는 반드시 같이 있을 사람을 삼가야 한다.”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문과 수양을 輔佑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를 선택해서 모델로 삼도록 가르치고 있다.

모델의 대상은 부모·교사·친구뿐만 아니라 가끔 내방하는 점잖은 손님까지도 해당된다. 「明心寶鑑」訓子篇에 “손님의 출입이 없으면 집안이 비속해지고, 시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교육은 단지 모델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단순한 모방이라기보다는 동몽으로 하여금 모델의 행동을 심상이나 상징 등에 의해 기억·파지하게 함으로써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경우도 모델의 행동이나 태도와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하도록 하는 모델링(崔敬淑, 1987: 19)이라고 보여진다.

모방의 원리는 人的인 면 외에 사회적인 주변 환경 면에서도 중요시되었다. 孟母의 三遷之教 일화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三遷之教는 사회적 주변 환경의 모델을 제시한 예로서 좋지 않은 환경이 아동들의 교육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방의 원리에는 이상의 방법 외에도 언행록, 생활시간표 같은 서적도 이용되었다. 즉, 부모나 스승은 동몽으로 하여금 古人的 선한 일화나 교훈적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모범적인 하루 생활을 접해 보도록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얻게 하였다. 이밖에도 어른들이 아동들에게 들려주는 이

야기 등에서도 이와 같은 모델 제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金玉蓮, 1984 : 86-87)

모방은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서 타인의 생활을 반복하여 관찰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 학습 또는 사회 학습으로도 불려진다. 현대 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건강한 신생아는 생후 42분 만에 모방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朱貞一, 1987 : 33),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人的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하였던 것이다.

오늘날과 달리 사회의 변화가 거의 없고 자녀 양육에 대하여 비교해 볼 새로운 사상이나 타 지역의 생활 양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전통 사회에서는 관찰과 모방, 그리고 동일시에 의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활의 방식이 전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속담도 생겼을 것이고, 그것은 역시 모방 학습의 무서운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른들이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早期 教育의 原理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태어날 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및 자극에 의해 신장될 수 있으며, 8세 전에 신속하게 발달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李榮碩 외, 1987 : 52), 세계의 여러 나라는 국력의 신장이라는 의미에서 早期 教育에 고심하고 있다.

아동은 발달 특성상 형성기에 있고 가소성과 감수성이 풍부하므로 조선 시대에도 早期 教育은 역시 중요시 되었지만 그 내용이 오늘날과는 다소 달랐다. 우선 그 시작에서 오늘날은 幼兒期가 보통이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해서 태아기부터 실시되었다. 「東醫寶鑑」에서는

交습을 법에 따라 하면 福德과 지혜가 있고 태교를 베풀어서 태중에서부터 性行이 調順하면 家道가 날로 높아지는 것이요, 만약 법을 위배하면 복이 없고 愚痴하며 태중에서부터 性行이 凶險하고 所作이 나빠져서 家道가 날로 否塞해지는 법이니 복록의 옹하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나는 것 같은 것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라고 하여 수정시의 父의 태교, 수정 후의 母의 태교를 모두 중시하였다. 특히 「胎教新記」에서는 스승의 十年之教, 母의 十月之育, 父의 一日之生을 대비시켜 교육에는 태교가 근본이며, 한 생명의 시작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지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오늘날의 早期 教育은 知育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德育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일상에서 바람직한 습관으로 나타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論語」에서는 “인간의 性情은 본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습관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라 하여 早期 教育의 근거로 후천적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모든 사람은 교육시킬 수 있으니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교육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禮記」에서

大學의 법에 악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금하는 것을 豫라 이르고, 감당할 만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時라 이르며, 단계를 무시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孫이라 이르며,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본받는 것을 摩라고 하니, 이 네 가지는 교육을 흥하게 하는 원리이다.

라 했는데, 이 교육 원리는 비록 大學의 法이라 이르고 있지만 小學도 포괄되는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朴連鎬, 1983: 8). 이 네 가지 교육 원리 중 豫法이 바로 早期 教育적인 면과 연관되는 것으로 아동에게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니 '豫'란 예방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小學」에서는 早期 教育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식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 가르치되 오른손으로써 하게 하며,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唯)하고 계집아이는 느긋이 대답(兪)하게 하며, 사내아이의 띠는 가죽띠로 하고 계집아이의 띠는 실로 할 것이다. 여섯 살이 되거든 하나·둘·셋 등의 셈하는 것과 동·서·남·북 등의 방위의 이름을 가르칠 것이다.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여 앉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

옛날 소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물뿌리고 쓸며 남을 맞이하여 접대하고 자신의 행동거지의 예절과 부모를 경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와 가까이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하였다. 이것은 모두 장차 배울 「大學」의 내용에 있는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이 되게 하기 위한 이유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나이가 어릴 때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으로,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서로 어그러져 이기지 못할 근심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백지 상태인 영아기, 즉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早期 教育을 실시할 것을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6세와 7세의 아동들에 대한

早期 教育 내용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大學」 교육의 목적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해 「小學」을 가르치되 그러한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幼少時의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豫法의 원리를 이용한 早期 教育의 단적인 예는 출생 전에 이미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편 「胎教新記」나 「東醫寶鑑」, 「閨閣叢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出生 後 幼少 時의 것으로는 「士小節」을 들 수 있는데

갓난 망아지는 착실하고 엄격하게 길들여 좋은 기술을 익히게 하지 않으면 좋은 천리마를 만들지 못하고, 어린 소나무 모종을 잘 북돋아 기르지 않으면 훌륭한 재목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는 오히려 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여 갓난 망아지와 어린 소나무 모종을 例로 들어 早期 教育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士小節」에서는 또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早期 教育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伊川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때는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직 주관이 없으니 마땅히 격언과 지극히 훌륭한 이론을 날마다 그 앞에 벌여 놓으면, 비록 똑똑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은근히 풍기는 향기가 귀에 배고 배에 차서, 오래 되면 저절로 익혀져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되어, 비록 다른 말로 유혹하더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미리 하지 않다가 좀 자라게 된다면 사사로운 생각과 좋아하는 편견이 안에서 생기고, 여러 사람의 입 판단하는 말이

밖에서 녹아들어 순진하고 완전하게 되려 해도 뜻대로 안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程伊川의 豫法教育原理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여 아동들에 대한 早期 教育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인격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袁氏世範」 睦親편에서도 “어릴 때 謹嚴을 가르치면 커서 悖慢의 걱정이 없고, 어릴 때 分別하게 하면 커서 나쁜 짓을 할 걱정이 없고, 어릴 때 均一하게 하면 커서 재물을 다룰 걱정이 없으므로” 바람직한 인격의 형을 어릴 때 확립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 「禮記」에서는 이러한 豫의 교육 원리를 실행하지 않아 나타나는 폐단도 지적하고 있다.

이미 養한 후에 금한다면 체질적으로 거부되어 능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하여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악습이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早期 教育이 되지 않으면 습관이 이미 굳어져서 교육을 받아 들일 수 없게 되어 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 사회 班家에서 널리 읽혀진 「顏氏家訓」 등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小學」에서는 張橫渠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張橫渠 선생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되, 먼저 모름지기 안정하고 차분하고 조심하며 공손하고 공정할 것이니, 지금 세상에 학문을 강론치 아니하여 남녀가 아이적부터 곧 교만하고 게으르게 되어버려 자람에 이르러 더욱 흉악하고 사나와지나니, 오직 일찍이 자제로서의 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

이다. 곧 자기의 부모에게 이미 남과 나라는 생각이 있어, 나라는 것을 고집하여 부모에게 굴복하고 낮추는 일을 즐겨하지 않아서, 교만하고 게으른 병의 뿌리가 항상 있어서 또 있는 바를 따라 자라서 죽음에 이르도록 오직 옛 버릇을 그대로 지녀간다.”

여기서는 早期 教育의 소홀로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安詳恭敬’의 정서적인 교육과 도덕적인 교육을 早期 教育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에 이루어진 버릇이 일생 동안 미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로서, 인격 형성기인 이 시기에 있어서 도덕적 早期 教育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早期 教育의 내용은 栗谷의 「擊蒙要決」, 朴在馨의 「海東續小學」, 尤庵의 「戒女書」, 鄭光淑의 「四蒙輯要」序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의 동몽 교육은 幼少時의 可塑性, 吸水性, 專利性(잡념이 없고 예리함)과 성장 후의 散逸性(사고가 산만하고 안일함)을 인정하여 早期 教育을 강조하였다. 동몽 교재에 나타난 早期 教育의 내용도 대부분 「禮記」에서 제시한 豫法의 교육 원리를 기저로 삼아,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좋은 습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생활 습관 면에서 早期 教育을 실시함으로써 德育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의 早期 教育이 지식이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知行一致의 原理

儒家의 교육은 知行一致를 요한다. 지행일치의 원리는 곧 지식과 실천의 결합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 지식으로써 실천을 이끌어 나가고 실천

으로써 지식을 시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는 주자가 「續近思錄」第二卷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헛되이 밝아 행하지 않으면 그 밝음이 사 용되는 바가 없어 텅 빈 밝음일 뿐이며, 헛되 이 행하여 밝지 못하면 행이 지향하는 바가 없어 캄캄하게 어두운 行일 뿐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말한 ‘밝음’이란 지식에서 얻 은 밝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되 고, 행하나 지식이 없으면 그 행함은 캄캄하게 어 두운 것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知와 行은 마땅 히 병진해야 하며 어느 한 쪽에 치중해서도 안 되 고 어느 한 쪽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朱子語類」第九卷에 말하기를

致知와 力行을 열심히 하여 어느 하나에 치중해도 안 되며 또 어느 한 쪽을 없애서도 안 되니, 한 쪽에 과다하게 치중한다면 다른 한 쪽이 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즉 致知에 치중하다 보면 공 허함에 빠지기 쉽고, 力行에 치중하다 보면 무리 함에 빠지기 쉽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또 그는 같은 책에서

先後를 論하자면 마땅히 致知가 먼저이나 輕重을 論하자면 마땅히 力行이 重하다.

라고 하여 知보다 行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論語」學而篇의 “행한 뒤에 남은 힘이 있 거든 곧 글을 배울지니라.”란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 시대의 退溪도 聖學의 입장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길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퇴 계집」에서 이를 보면

또 들건대, 공자께서는 “배우고도 생각하 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와진다”하였으니 學이란 그 일을 습득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대저 聖門의 학은 마음에서 구하 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얻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그 미묘한 것에 통달하고, 그 일을 습득하지 못하면 위태로 와져서 불안한 까닭에, 반드시 일을 배워서 그 실상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생 각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밝히고 서로 유익 합니다.

라고 했다. 그는 “孔門의 교육이 반드시 배우는 이로 하여금 仁을 구하는데 쉬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퇴계집」)라고 하여 聖學을 이와 같이 仁을 구하는 학문이라 하고 마음으로 仁을 구하여 나의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곧 ‘爲己之學’으로 道理를 지식의 대상으로, 덕행을 실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申龜鉉, 1985: 84). 이처럼 지행 일치의 교육 원리는 덕행을 강조한 도덕적 실천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겠는데, 조선 시대의 동몽 교 재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擊蒙要訣」에 의하면

배움이란 날로 쓰고 있을 행함에 있으니, 만일 평상 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고,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 사림에 충실하면 이것 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책을 읽는 것은 이 이치를 밝히는 것뿐이다.

라든지

만약 입으로만 읽어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하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이니 무슨 이득이 있으리오.

라고 하여 儒學은 언어와 문자로만 배우는 口耳之學이 아니고 實踐窮行을 통하여 배우는 心性之學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동몽들에게 요구한 行의 구체적인 내용은 『擊蒙要訣』에 나타나 있다.

사람은 학문이 아니면 진실로 그 어느 것이 孝가 되고, 어느 것이 忠이 되며, 어느 것이 悌가 되고, 어느 것이 信이 됨을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글을 읽어서 이 이치를 궁구하고, 옛 사람의 행실을 관찰하여 내 마음을 체험하면서 그 한 가지 善이라도 이를 얻어 힘써 행한다면 孝·悌·忠·信의 질도가 자연히 하늘이 정한 법칙에 맞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도덕의 실천을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며, 그 배운 지식으로 이치를 깨고 그 마음으로 고인들의 선행을 체험하여 선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 동몽 교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주자의 견해처럼 그 도덕 가치적 측면에서 行을 더 중시하고 있다. 또한 실천의 내용을 유교의 기본 덕목인 孝·悌·忠·信의 도덕적 가치관에 두고서, 도덕적인 인격의 완성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의 가장 핵심인 ‘仁’ 사상이 인간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의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李明基, 1985 : 35), 유교 사상이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지행일치의 교육 원리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조선 시대에는 先人間 後學間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고수되었는데(金裕赫, 1990 : 2), 이는 儒家의 여러 인격 요소 가운데에는 ‘德’을 중심으로 한 범도덕주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儒家는 도덕적 가치로서 인간의 인지적 가치, 의지적 가치, 심미적 가치를 저울질한다. 따라서 ‘知’, ‘志’, ‘美’는 德에 종속되며, 이것은 상대적 독립성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공자는 “知가 미치더라도 仁으로써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비록 얻었다 하나 반드시 잃고 만다.”(「論語」衛靈公), “지혜로우나 仁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春秋繁露」必仁且智)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仁 또는 德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동몽 교육에서도 행위의 반복 습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에서의 學은 效 즉 본받음이고, 본받음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론적인 窮理와 행위적인 居敬의 유교 두 軸 가운데에서 퇴계와 같은 조선의 유학자는 후자를 더 중시했으니 동몽 교육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4. 禮 教育의 原理

禮란 원래 신령에게 바치는 귀한 물건을 담은 제기란 뜻으로 신을 모시는 의식, 즉 제천·제신의 禮를 의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공자에 이르러서는 인간에 대한 것이 강조되게 되었다(李明基, 1985 : 59). 그래서 禮는 광의로는 사회 규범 및 사회제도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의식이나 모든 동작을 포함한 일상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禮의 내용과 성격으로 인하여 禮는 당시의 개인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에도 중요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 「論語」季氏篇에서는 “禮를 배우지 않으면(덕성이 굳지 못하여)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禮記」의 仲尼燕居에서는

禮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백성이 잘 다스려지나 禮가 쇠퇴하는 곳에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때문에 눈짐작으로 만든 堂室에도 신분 질서를 명백히 하는 奧(서남쪽 구석, 尊者가 있는 곳)와 阼(동쪽의 섬돌, 주인이 오르내림)가 있으며, 좌석에도 신분을 알 수 있게끔 上下가 있으며, 수레에도 左右가 있어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길을 걸을 때에도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신분을 따르며, 설 때에도 신분에 따라 서는 위치가 다른 것인데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禮의 뜻이다.

라고 하여 신분의 상하에 따른 禮를 규정하고 국가 통치를 확립하는 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論語」에서 공자는 顏淵이 仁에 대해 묻자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禮로 돌아감이 仁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곧 仁의 구체적인 표현이 禮라는 뜻으로서 仁과 禮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仁의 유교적 도덕성이 禮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공자는 행동 강령을 묻는 안연에게 “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禮가 아니면 듣지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禮가 아니면 하지도 말라.”라고 했다(「論語」顏淵). 또 「禮記」曲禮上에 의하면

사람이 禮가 있으면 편안하고 禮가 없으면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禮는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릇 禮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으로, 비록 負販하는 미천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늘 하물며 부귀한 사람이라, 부귀한 사람으로서 禮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으며, 빈천한 사람으로서 禮를 좋아할 줄 알면 뜻이 위축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禮의 원칙으로 삼았다. 또, “몸을 닦고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을 善行이라고 하며, 이 선행이 닦여지고 말이 도의에 합당되는 것이 곧 禮의 바탕인 것이다.”라고도 하여 禮의 본질이 바로 유교의 근본적인 도의라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 「小學」에 의하면

吉한 사람은 눈으로 禮가 아닌 빛을 보지 않으며, 귀로 禮가 아닌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 禮가 아닌 말을 하지 않으며, 발로 禮가 아닌 땅을 밟지 않아서,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사귀지 않으며, 재물이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며, 賢人을 친하기를 芝草와 蘭草의 향품에 나가는 것처럼 하며, 악인을 대하기를 뱀이나 전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할 것이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곧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 하였다.

라고 하여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선을 도덕적 가치로 삼는 吉人を 설명하면서 모든 생활을 禮에 맞추어 할 것을 요구하고, 禮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 「擊蒙要訣」과 「士小節」에서는

몸과 마음을 가지는 데는 아홉 가지 모습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학문에 나아가 지혜를 더함에는 아홉 가지 생각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니, 이른바 아홉 가지 모습이라는 것은 발걸음은 무겁게 하라. 손놀림은 공손히 하라. 눈가짐은 단정히 하라. 입은 고요히 가지라.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 머리가 짐은 끈게 하라. 숨쉬기는 정숙히 하라. 설 때는 덕스럽게 하라. 얼굴 모습은 장엄하게 하라. 그리고 아홉가지 생각이라 함은 보면 밝음을 생각하고, 들으면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함을 생각하고, 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은 충실함을 생각하고, 일하는 데는 경건함을 생각하고, 의심나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할 때에는 참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재물을 얻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할 것이다.

예절을 익히는 데는 모름지기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을 엄숙하게 하고, 그 거동을 살피고, 그 몸가짐을 헤아려, 소홀하고 게을리하지 말고, 막히고 거뭇되게 하지 말고, 빠르고 촌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도 느리고 더딘 실수가 없도록 하고, 수양하고 삼가면서도 구애하고 머뭇거리는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오래 닦으면 예절을 갖춘 모습이 잘 익혀지고 도덕적인 성품이 굳건하게 정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여 예절을 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禮를 다스리는 길은 敬을 취대로 삼는다.”(「禮記」哀公問)라든가 “禮는 그 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달리하나 그 귀결되는 바는 敬에 함함에 있으니, 즉 공경하는 것일 뿐이다.”(「禮記」樂記)라는 말과 통한다. 敬 사상을

중시하는 이러한 측면은 유교적 학문인 性理學이 인간으로 하여금 ‘敬’을 통해서 자신의 性格의 統整과 心理의 安定을 찾고 나아가 인격적 완성을 하도록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禮記」같은 고급의 유교 경전에서도 ‘禮毋不敬’이라 하였고, 조선 시대의 범국민적인 교재였던 「小學」에도 73章에 걸쳐 ‘敬’이 강조되어 있다. 퇴계 또한 경을 중시하여 “말할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고, 움직일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며, 앉아 있을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니, 잠간이라도 이 敬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공부를 함에는…… 敬으로써 主宰를 세워야 하느니라.”등으로 가르치고 있고(「퇴계집 언행록」), 율곡도 「聖學輯要」에서 程子와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敬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의 근본은 仁이며 仁을 나타낼 때는 禮로 하는데, 그 방법이 敬이라는 것이다. 즉 敬으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禮를 행하며, 禮가 仁의 경지에 들어서는 바탕이 되므로, 일상 생활에서의 禮가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5. 性役割의 原理

「周易」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陰과 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陰은 柔順을 대표하는 것으로 정지적·소극적이며 陽은 剛健을 대표하는 것으로 활동성과 적극성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는 <표 1>에서 처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남성은 陽으로서 하늘에 비유되고, 여성은 陰으로서 땅에 비유되었다. 남녀를 이와 같이 보는 견해는 음양이 결합하여 완전한 하나, 즉 태극을 이루듯 남성과 여성을 조화시켜 원만함을 이루려는 것이지, 여성을 낮은 지위에 얽어 매어 구속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즉 陰이 없으면 陽의 의미가 없고, 낮음이 없으면 높음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성이 존재함으로써 남성도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丑 1〉周易에 나타난 儒敎의 宇宙觀

區分	境遇	易理	現象	時間	場所	人倫	人事
陽(男)	動	剛	天·日·明	春·夏·晝	上·前·高	父·君·夫·男	尊·貴·吉·福
陰(女)	淨	柔	地·月·暗	秋·冬·夜	下·後·低	子·臣·婦·女	卑·賤·凶·禍

이러한 남녀의 구별과 그에 따른 성의식·성역할에 대한 훈련은 부모들에 의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상 위에 놓고 좋은 옷을 입혀 구슬을 가지고 놀게 했으나, 딸을 낳으면 상 아래 놓고 험한 옷을 입혀 기와와 벽돌을 가지고 놀게 하였다(女西書 卷之一, 「女誠 卑弱」). 상 아래 눕힘은 그 卑弱한 位相을 밝히기 위함이고, 기와와 벽돌을 가지고 놀게 함은 이것들이 길쌈의 도구이므로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 근면함을 길러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小學」에서는

자식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 가르치되 오른손으로써 하게 하며,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唯)하고, 계집아이는 느긋이 대답(兪)하게 하며, 사내아이의 띠는 가죽띠로 하고 계집아이의 띠는 실로 할 것이다. 여섯 살이 되거든 하나·둘·셋 등의 셈하는 것과 동·서·남·북 등의 방위의 이름을 가르칠 것이다.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여 앉지 않으며, 음식은 함께 먹지 않는다.……

라고 하여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이미 남녀를 구별한 교육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昭惠 王后 韓氏의 「內訓」에는 “여자가 다섯 살에 비로

소 여자가 할 일의 작은 것을 배워 익힌다.”라고 하여 성역할에 대한 교육은 6세에 이미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男女有別적 교육은 「禮記」 內則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0세부터 시작되었다.

남자가 열 살이 되면 밖에서 거처하고 잠자기 하며 교사를 택해서 글씨를 쓰고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 옷은 비단으로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행하는 예절은 모두 처음에 가르친 대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예의를 배우되 간이하고 신실한 일을 청하여 익히게 할 것이다. 11, 12세의 경우도 모두 같다. 남자로서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가를 외우며 句으로 춤을 추게 하고 15세 이상이 되면 象으로 춤추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여자가 열 살이 되면 항상 閨門 안에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으며 여스승은 이에겐 언어를 상냥하게 하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며 어른의 말에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 또 방적, 양잠, 제사, 베풀기를 가르친다. 이렇듯 여자의 일을 배워 이로써 의복을 공급하게 한다. 또 제사의 예를 보도록 하여 주장, 변두, 저해를 사당에 올려 공제하는 법을 연습

시키고, 이로써 예를 행할 때 어른을 도와 祭 을 놓는 일을 돕게 한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교육 내용면에서 남자는 외향적이며 지식 위주인 반면, 여자는 내향적이며 가족에 대한 의식 공급, 손님 접대, 제사 모시기 등 가사 위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는 제도적인 교육 기관에서 지식 교육을 받고 사회 생활에 참여하여 지도자의 자질을 길렀으나 여자는 가정에서 부덕과 가사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서 남녀가 이와 같이 다른 것은 전통 사회에서 남아는 자라서 八條目을 구비한 聖人(君子)이 되고, 여아는 자라서 婦德·婦言·婦容·婦工을 갖춘 窈窕淑女가 되기를 바랐던 교육 목표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6. 發達特性的 原理

앞에서 언급한 교육 원리 외에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동몽교육에서 발달특질적인 면이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첫째, 성숙도가 고려되었다. 「孟子」 盡心章上에 의하면

군자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하며, 덕을 이룩하게 해주며, 재능을 발달시켜 주며, 물음에 대답해 주며, 혼자서 덕을 잘 닦아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라고 하여, 군자 교육의 다섯 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그 첫번째의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표현에서 피교육자의 성숙도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실시하는 교육 태도가 나타나 있음

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禮記」 學記에도

……깨우치려고 할 때, 즉 학생이 스스로 발분하여 알기를 구할 때에 즈음하여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를 時法이라 한다.

악습이 이미 발한 연후에 금지할 때에는 惡慾이 가르침을 막는데 있어 堅強하여 가르침이 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때가 지난 연후에 배울 때에는 긴장이 풀려서 아무리 부지런하고 고생하더라도 학문이 달성되기 어렵다.

라고 하여 성숙도와 학습 시기를 고려해서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퇴계도 자녀 교육에서 성장에 맞게 과제를 주고 근신하는 법도를 가르친 것처럼(權五鳳, 1987: 298) 이것은 조선 시대 아동 교육 방법의 기본 원칙이었다.

둘째는 교육에서 개인차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論語」 顏淵·爲政篇의 ‘仁’, ‘孝’, ‘君子’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자를 위시한 유가 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다. 「禮記」 學記에 의하면

군자는 사람의 賢愚, 또는 재능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학문에 이르는 데 있어 쉽고 어려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의 자질이나 습관이 좋고 싫음에 따라 선으로 향할 때 遲速이 있음을 알아서 그런 연후에 능히 그 재질의 깊고 얇음이나 고하에 따라 널리 깨우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재질의 심천 고하에 따라 진실로 깨우치게 한다면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와 같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하도록 하였고, 퇴계도 자제들과 아이·어른을 가르치고 경계할 때는 그 사람됨을 따라 하였다고 전한다(「국역 퇴계집 Ⅱ」 p. 266). 아동 교육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보면 「日用指訣」日出에

중간 이하의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形而上의 것을 말하여 줄 수 없으니, 다만 그 사람의 위치에서 절실하고 실제적인 일로써 알려 주는 것이 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재질을 다 알아야 잘못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개인차를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페스탈로찌가 “교육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한 아동 중심 교육이 동양에 있어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로 발달 순서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행하였고 비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禮記」學記의

幼年者는 강의를 들을 뿐이고, 선생에게 질문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의 실력을 꺾을까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군자가 남을 教諭하는 데는 절도가 있는데 勢에 따르고 때에 응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인도하고 너무 급히 이끌어 빨리 通曉하게 하지 않으며, 또 학생으로서 지력이 있는 자는 그가 발분하기를 기다려 격려할뿐 눌러서 그 心氣를 막지 않는다.

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의 순서도

초급에서 고급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道의 실천에서도 먼 것 보다는 가까운 데서, 겉보다 속부터 하도록 권하였다. 「日用指訣」日出에 의하면

군자가 남을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어서 작은 것과 가까운 것을 먼저 권한 이후에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하였다. 비단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전반에도 순서가 있다고 믿고 교육시킴으로써 피교육자의 내면에 있는 純善과 道德을 점진적으로 밖으로 개발시키도록 하였다.

네째로 앞에서 인용된 군자의 다섯가지 교육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발성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日用指訣」日出에

후진을 가르치고 이끌 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흥기시키고 개발해 주어야 한다. 단지 엄격하고 강인하게 구속만 하면 桴苗助長의 위험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라 하였다. 앞의 “지력이 있는 자는 그가 발분하기를 기다려 이를 격려할 뿐”이라는 말도 역시 자발성의 원리를 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학습에 있어서는 自得이 중요하며, 自得하려면 학습자의 자발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더구나 儒學에서 추구하는 仁은 그 內在인 성격상 자발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동 교육에서부터 이를 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結 言

인간은 백지 상태의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본 유학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善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일, 즉 仁의 실천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무의식적이고 간접적인 교육을, 다음에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태아기는 正心과 정성 및 조심으로, 그리고 유아 전기까지는 實裕·慈惠·溫良·恭敬같은 덕성과 視·聽·言·動 등의 행위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무의식적이고 간접적인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유아 후기부터는 아동에게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습관이 되도록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일관되는 것은 인, 즉 유교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전통 사회의 교육은 처음에는 부모·스승 등에 의하여 사랑을 받고, 다음에는 스스로 수양하여 사랑을 충실히 한 후에 이것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도덕 교육이라 하겠다.

덕육은 그 성질상 일상 생활을 통하여 실제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교육 또는 실천교육이며, 생활은 일생 동안 향상을 바라면서 계속되는 것이기에 이는 곧 평생 교육이다. 아동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인격체의 완성인 聖人(君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적 원리를 적용하였는지 유교 경전 및 동몽 교재를 통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스승·친구 등의 모범적인 언행을 동몽이 보고 모방하여 익히도록 하였다.

둘째, 나쁜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어 굳어지기 전에 조기 교육을 하였으며 이것을 '豫法'이라 하였다.

셋째, 知와 行을 병행하되 이론인 知보다 실천인 行을 더 중시하였다.

네째, 일상 생활에서 敬으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禮 교육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性別에서 남녀의 교육 내용과 목표를 달리하였다.

여섯째, 童蒙의 성숙도·개인차·발달순서·자발성 등의 원리를 고려하여 교육하였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동몽 교육은 오늘날의 교육 원리에서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조기 교육·생활 교육·모방 교육·발달 특성에 따른 교육 등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대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 및 의의가 인정된다.

참 고 문 헌

- 葛榮晉(白道根 譯). (1990). 儒家의 人格要素論. 人文研究 第十二輯 第一號.
- 邱椿. (1985). 古代教育思想論叢(上, 中, 下冊).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權五淳 譯解. (1982)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 權五鳳. (1987). 退溪의 子弟觀. 退溪學研究, 第一輯.
- 金星元 譯. (1986). 小學. 서울: 明文堂
- 金玉連. (1984). 幼兒教育史. 서울: 正民社.
- 金裕赫. (1990). 退溪의 人間像이 오늘에 주는 敎訓. 國際退溪學會 第十二回 退溪學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
- 金鍾權 譯註. (1983). 海東續小學. 서울: 明文堂.
- 金赫濟 校閱. (1986). 孟子. 서울: 明文堂.
- 盧台俊 譯解. (1986). 周易. 서울: 弘新文化社.
- 柳重臨(영인본). (1981). 增補山林經濟. 서울: 亞細亞文化社.
- 博世茂(李錫浩 譯). (1971). 童蒙先習. 서울: 乙酉文化社.
- 朴連鎬. (1983). 朱子學의 根本培養說과 朝鮮前

- 期の「小學」教育, 韓國精神文化研究員附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虛閣 李氏(鄭良婉 譯註). (1975).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 師朱堂 李氏. 胎教新記. 筆寫本.
- 成百曉譯. (1990). 論語集注. 서울: 지영문화사
- 昭惠王后 韓氏(金寧翰 譯註). (1985). 內訓. 서울: 民友出版社
- 宋時烈(正民社 編). (1980). 戒女書. 서울: 正民社.
- 宋昌基. (1978). 中國古代女性倫理觀. 臺灣政治大學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 申龜鉉. (1985). 「自省錄」을 통해 본 退溪의 爲學方法論. 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人文研究, 第七輯, 第四號.
- 顏之追纂(王利器 集會). (1984). 顏氏家訓. 臺北: 明文書局.
- 哀采. (民國 60). 袁氏世範. 臺北: 學生書局.
- 李基奭 譯解. (1982). 童蒙先習·啓蒙篇·童蒙須知. 서울: 弘新文化社.
- 李德 (金鍾權 譯). (1985). 士小節. 서울: 明文堂.
- 李東歡 譯. (1983). 明心寶鑑. 서울: 玄岩社.
- 李明基. (1985). 仁의 教育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相殷. (1976). 儒學과 東洋文化. 서울: 凡學圖書.
- 李樹健. (1968). 李朝時代 「小學」教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 論文集, 第一輯.
- 李榮碩·朴載煥·金京中. (1987). 幼兒教育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 李珥(張聖澤 譯). (1966). 擊蒙要譯. 강릉: 문양출판사.
- 李珥(民族文化推進委員會 編譯). (1977). 栗谷集 I, II. 서울: 景仁文化社.
- 李滉(民族文化推進委員會 編譯). (1977). 退溪集 I, II. 서울: 景仁文化社.
- 丁淳睦 編著. (1983). 韓國留學教育資料集解 (I): 童蒙教育篇. 서울: 學文社.
- 趙乙熏 校閱. (1973). 大學·中庸. 서울: 玄岩社.
- 朱貞一. (1987). 兒童發達學. 서울: 教文社.
- 崔敬淑. (1987). 兒童心理學. 서울: 民音社.
- 許浚(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編). (1989).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